



사원 71% “박정찬 사장직 수행 반대”

연합뉴스 사원 대다수가 박정찬 사장이 연합뉴스의 ‘선장’이길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사원을 대상으로 박정찬 사장의 거취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 참여율

75.61%에 반대가 93.84%로 집계됐다. 전체 사원 대비한 박 사장의 사장직 수행 반대율은 70.95%다.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6일간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

에 전 사원 816명 중 617명이 참여해 579명이 박 사장의 사장직 수행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한 이는 38명 (6.16%)에 불과했다.

앞서 박 사장이 자신이 낸 중재안을

철회하고 2차 업무복귀명령까지 내리자 연합뉴스 노조는 사태 해결을 위해 연합뉴스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업무복귀 압박·분열 획책 중단하라”

노조, 사장실 앞 집회서 강력 항의

연합뉴스 노동조합은 9일 오전 11시 본사 사장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갈수록 도를 넘어 ‘분열 획책’ 수준으로 치닫는 사측의 업무 복귀 압박 움직임을 규탄했다.

사측은 파업 돌입 직후부터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각개격파’식으로 업무 복귀를 종용해왔다. 이런 움직임은 이달 3일 새내기 조합원이 대거 파업대오에 합류한 이후 한층 노골적으로 변했다.

주로 연차가 높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인간적인 정에 호소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안한 사내 지위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겁박하는 사례가 늘었다.

공병설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보직 간부들이 부서별 복귀 조합원 숫자를 들이대며 ‘다른 부서는 몇 명이 돌아왔는데 우리만 없다’고 설득한다. 여기 저기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뒷선에서 공공연히 복귀 숫자를 놓고 실적경쟁을 시켜 간부들도 심한 압박을 받는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인사부에서 먼저 없었던 ‘계약직’이란 표현까지 나온다. 인격 모독에 가까운 폭력적인 언사를

동원해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그동안 불필요한 선·후배간 갈등을 막고 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사측은 내부 불화를 키우는 ‘공작’을 벌이는 셈이다.

공 위원장은 “조직 통합보다는 분열을 꾀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급하더라도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인데 이런 저질 행동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후유증을 만들어 놓은 이들이 노조에 책임을 돌린다. 업무 복귀자 한 명을 늘리려고 통합을 해치는 일을 누가 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또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박 사장 거취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다시 천명했다.

공 위원장은 “설령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누구와 달리 당당하므로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사장이 결단을 내려서 파업 사태를 끝낼 만한 안을 내놓

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7~8일 연달아 조합원들에게 앞뒤가 맞지 않은 변명을 했던 박 사장은 이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심때가 되자 사장실을 나온 박 사장은 양손을 주무르며 모여있는 조합원들을 흘깃바라보고서 종종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오후 2시 한빛공원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투쟁 열기는 뜨거웠다. 지방본부 조합원도 참여해 모인 인원이 250여명이나 됐다.

중국 선양에서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최근 귀임한 박종국 조합원은 “꽃피는 4월, 복귀 시점이 되면 회사사정이 좋아져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노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박 조합원은 “이번 파업의 목표 박정찬 사장 퇴진이 아니라 그저 그런 월급쟁이가 기자로 살아왔던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이라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공정보도’라는 지향점만 보고 간다면 연조나 나이는 상관없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2년차 기자들은 왜 거리에서 춤을 췄나 연합뉴스 파업 알리는 '전국 순회' 선전전 벌여

파업 중인 연합뉴스 2년차 기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손에는 노트북 대신 피켓을 들었다. 그리고 춤을 췄다. 카메라는 “기사를 써야지 왜 춤추러 나왔느냐”며 의아해하던 시민들에게 맡겨졌다. 전국각지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이 모여 ‘Dancing Reporters(춤추는 기자들)’가 태어났다.

2011년 입사한 기자들은 ‘공정보도 확립과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란 파업의 명분을 널리 알릴 방안을 고민했다. 그 결과 UCC(사용자손수제작물)를 홍보 수단으로 결정했다. 문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까였다. 결론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에서 시민들에게 연합뉴스 파업을 선전하고 그곳에서 기자들이 춤추는 것을 시민들이 찍는 방식으로 하자였다. 다행히 2011년 입사자들은 본사뿐 아니라 지방에 근무하는 이들도 많아 전국적인 규모의 프로젝트가 가능했다.

이들은 이달 초 ‘박정찬 사장 퇴진 후 가볼 만한 국내 관광지 30선’을 선정하고 직접 그곳을 찾았다. 남산타워, 명동, 잠실야구장, 불국사, 첨성대, 통일전망대, 월미도, 해운대 누리마루, 전주 한옥마을 등이 이들이 뽑은 30선에 들었다.

선전 유인물을 나눠주고 피켓만 흔드는 것이었다 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30여 년 가까이 몸치·박치로 살아온 이들은 ‘춤으로 시민을 사로잡아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선글라스와 모자,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지만 손발이 어긋날 때마다 화끈 달아오르는 얼굴은 감

출 수 없었다. 그러나 함께였기에 이들은 파주 임진각에서 부산 누리마루에 이르는 각지에서 ‘막춤 선전전’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었다.

처음에는 거리에서 춤추는 것이 어색했다. 시민들의 싸늘한 반응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하지만 “연합뉴스 파이팅!”이라는 시민들의 한마디는 이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전국 순회 선전전을 이어갈수록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겼다. 부산의 자갈치 아저씨가, 인천 차이나타운의 관광객이, 인사동을 찾은 고등학생들이 연합뉴스 파업에 연대의 뜻을 보여줬다.

서울타워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힘내라!”라고 외쳤고, 순천만에선 여행객들이 흔쾌히 카메라로 출연하기도 했다. 대전 엑스포공원에선 “어서 파업에서 승리해 다시 월급을 받길 바란다”는 시민의 격려에 이들은 긴 여정을 이어갈 힘을 얻었다.

2011년 입사자들은 3분10여초짜리 짧은 영상 안에 담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경주 첨성대와 불국사에서는 어찌나 열정적으로 몸을 흔들었는지 관광객들이 문화재보다 기자들을 더 신기하게 봤다고 한다. 잠실 야구장에서선 수많은 야구팬 앞에서 부끄러움을 잊은 채 춤을 추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관중들은 야구에 정신이 팔려 촬영을 부탁할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인사동과 광화문 광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손짓, 발



짓을 섞어가며 연합뉴스 파업을 소개해 공정보도쟁취 투쟁을 세계에 알렸다고 자평하는 조합원도 있었다.

영상 편집을 맡은 이재림 조합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싶었다”며 “시민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우리 모습을 촬영해준 것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카메라만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강 둔치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카메라만 들고 있기는 아쉬웠던지 앞으로 뛰쳐나와 예사롭지 않은 춤 실력을 선보였다. 전주국제영화제 현장에선 자원봉사자들이 처음 보는 안무도 가뿐히 소화해내며 2011년 입사자들의 춤사위에 동참했다.

이번 영상은 ‘공정보도 연합뉴스,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로 끝을 맺는다. 이들이 지난 한주 전국을 돌며 마음에 새겼던 한마디였다.

오늘의 파업 키워드*
“육아”

평소 격무에 시달리며 육아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 아빠들. 아이와 전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쁘다. 이번 파업은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위한 투쟁이기도 해서 더욱 절실하다.

김호준 조합원 (정치부)
지난 파업 콘서트에서 농구공 위에 올라 공 3개를 자유자재로 다룬 ‘춘사마차력단’ 김호준 사범의 묘기는 한 편의 ‘아빠의 도전’이었다. 올해 8살, 4살인 딸들 앞에서 열심히 차력을 연마한 덕분이었기 때문. 차력 소품은 이제 아이들의 장난감이 됐다.

김윤구 조합원 (국제뉴스부)
오는 25일은 김윤구 조합원의 딸 하윤이(아명 ‘용’) 첫돌이다. 아이 사진을 찍는 재미에 흠뻑 빠진 ‘딸 바보’ 김 조합원은 직접 이유식을 만들어 먹인다. 단, 그는 파업하고 술자리가 부쩍 늘어 오히려 전보다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었다고 한다.

권혜진·강병철 조합원 (미라부·정치부)
지난해 11월 예쁜 딸을 낳은 사내거를 권혜진·강병철 조합원. 둘의 장점만 빼닮은 윤하는 미모가 배우 김태희의 어린 시절을 뽐낼 정도라고 벌써 소문이 자자하다. 요즘 머리숱을 늘려보려고 머리를 바짝 깎았는데 검사검사 파업 승리를 위한 ‘삭발투쟁’을 하고 있다.

서정주 조합원 (증권부)
간밤 해외 증시를 전하러 매일 새벽 5시10분에 집을 나섰던 서정주 조합원은 파업에 동참하고 나서 어린이집에 안 가겠다고 떼쓰는 딸 지우 때문에 한동안 애를 먹었다. 엄마가 일찍 외출하지 않으니 어린이집 문 닫는 일요일이라 생각한 지우. 요즘은 전보다 엄마에게 달라붙어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본노하라! 연합뉴스”

“앗, MBC 파업동지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등곳길에 함께한 모 조합원 얘기다.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 손을 잡고 학교에 왔는데 자기 말고도 한 아빠가 있어서 의아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MBC 노조 조합원이었던 것. 미양 반갑지만은 않은 조우.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어린이날 선물을 받지 못한 딸에게”
한 조합원은 어린이날에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노조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는 5년 전 핏덩이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면서 “아빠 회사 사장님 때문에 우리 집이 더 가난해지더라도 너에 대한 엄청난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해서 읽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지난 4월18일 파업 한 달 문화제에서 차력 시범을 선보이고 있는 김 조합원.